

강이야기

4

River & Culture



이영희 | 초록미담영농조합법인  
(dyfam@hanmail.net)

# 누운갯버들, 갯버들, 키버들, 왕버들 차이점

## 1. 머리글

봄이 오면 나무들은 물이 오르기 시작한다. 무딘 사람들의 눈에도 마음에도 나무에 스며 올라오는 생명의 흐름을 가장 잘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나무는 바로 버드나무가 아닐까 싶다. 잎도 나지 않은 갈색 나뭇가지는 어느덧 노릇하고 파릇한 기원으로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우리는 누구나 버드나무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드물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버드나무의 종류로는 능수버들, 갯버들, 수양버들, 고리버들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종류만도 40여 종류가 넘는다.

버드나무류는 모두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활엽수이며, 종류에 따라서 갯버들 같은 작은 키나무도 있고 버드나무나 왕버들 같은 큰키나무도 있다. 이 모든 버드나무류는 제각기 잎모양도 생태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물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우물가에서는 물이 많아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연못이나 우물 같은 물가에 버드나무를 심었지만, 하수도 옆에는 심지 않았다. 그 이

유는 버드나무가 물을 따라 왕성하게 뿌리가 뻗어 하수도를 막기 때문이다.

버드나무는 늘어진 가지가 멋스럽고 물과 잘 어울려 가로수나 풍치수로 많이 심어 왔는데, 언제부터인가 봄에 날아다니는 하얀 솜뭉치 같은 것이 몸에 좋지 않다고 하여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통 꽃가루로 알고 있는 하얀 솜뭉치는 종자를 가볍게 하여 멀리 날려 보내기 위한 종자에 붙은 솜털로 종모(種毛)라고 한다. 꽃가루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에 날리면서 먼지 등 건강에 좋지 않은 물질이 종모에 묻어 다닐 수 있을 것이다. 하얀 솜뭉치가 대기오염물질을 옮길 수 있는 물질이라면 식재시 암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솜나무를 식재하면 하얀 솜뭉치로 인한 알레르기 현상은 없어질 것이다.

버드나무는 물을 정화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 강하고 대기 정화능력도 좋고, 버드나무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로 아스피린을 만들고 있는 점 등 버드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버드나무를 무조건 베어버리기보다 버드나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잘 식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2. 누운갯버들, 갯버들, 키버들, 왕버들

우리나라 하천가에 자라는 버드나무는 누운갯버들, 갯버들, 키버들, 왕버들이 있다. 따뜻한 바람에 깃털이 간지럽게 느껴질 즈음이면 겨울동안 꽂꽂 얼었던 대지는 살짝 봄향기를 풍긴다. 먼 산에 아지랑이가 가물거리고 실개천의 얼음장 밑으로 졸졸 시냇물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 냇가 양지녘에는 보송보송 귀여운 털 꿩지를 조랑조랑 매다는 녀석들이 있다. 은색의 하얀 털이 저녁노을에 반짝이기도 할라치면 봄의 개울가는 요정들의 잔치터 같다. 이들이 바로 버들강아지 혹은 버들개지라 부르는 갯버들의 꽃, 봄의 전령들이다.

강가의 물이 들락거리는 '개'에 잘 자란다하여 개의 버들이 갯버들이 되었다. 이름 그대로 강이나 개울가를 비롯한 습지를 좋아한다. 많은 가지가 올라와 커다란 포기를 만들고 평생을 자라도 사람 키를 넘기가 어려운 땅딸보 나무이다. 여름철에 비가 흠뻑 내려 불어난 물살에 뿌리의 흙이 씻겨 내려가 버리면 실지렁이 모양의 잔뿌리가 곧잘 드러난다. 이곳은 체 같아서 물에 떠내려 오는 작은 나뭇가지, 잎사귀, 산속의 온갖 잡동사니까지 모두 걸러든다.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주고 물에 녹아 있는 질산態 질소(窒酸態 窒素, nitrate nitrogen)와 인산(磷酸 phosphoric acid)을 흡수하여 수질을 정화하는 작은 공장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 중 버들붕어, 버들치, 버들개 등이 갯버들 뿌리 속에 숨어 사는 산다.

갯버들과 비슷한 종류로서 선조들이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인 키버들이 있다. 또 다른 이름으로 고리버들이라고도 하며 쉽게 휘고 질긴 가지를 엮어서 옷상자(고리), 키, 광주리, 동고리, 반진고리 등을 만들었다.

왕버들은 가지가 굵고 튼튼하며 버드나무 종류이면서도 가지가 늘어져 있지 않다. 가느다란 가지가 길게 늘어져 산들바람에도 하늘거리는 능수버들이나 수양버들과는 사뭇 다르다. 왕버들은 수백년을 거뜬히 살 수 있으며 아름답기로 자라고 모양새가 웅장하여 우리나라에 자라는 30여종의 버

드나무 가운데 왕으로 꼽힌다. 왕버들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 2.1 누운갯버들과 갯버들의 생육상태

#### 누운갯버들

- 학명 : *Salix graciligrans*
- 분류 : 버드나무과
- 분포지역 : 한국(제주 제외), 일본
- 서식장소 : 냇가
- 용도 : 방수림(수해를 막기 위해 바닷가나 강가에 만들어 놓은 숲). 가지와 잎은 단백질과 전분이 많아 어린잎과 줄기는 식용 또는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 개화기 : 3~4월
- 결실기 : 4~5월



(그림 1) 누운갯버들

- 형태 : 높이는 1~2m이다. 앞으로 비스듬히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갈라져서 옆으로 퍼지고 뭉쳐난 것처럼 보인다. 어린 새가지는 처음에는 털이 많이 나나 점차 떨어져 노란빛을 띤 녹색이 된다. 잎은 거꾸로 선 바소 모양이며 처음에는 명주실 같은 털이 나지만 성숙하면 없어진다. 길이 5~10cm, 나비 15mm이고 잔 톱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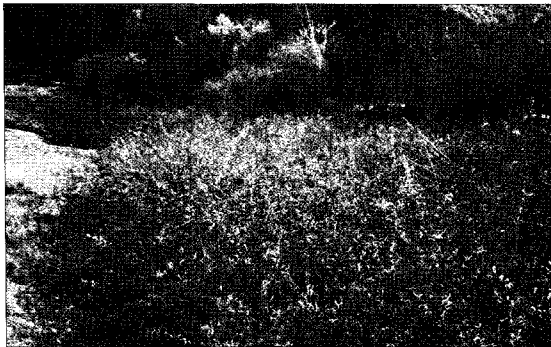
#### 갯버들

- 학명 : *salix gracilistyla miquel*
- 분류 : 버드나무과
- 분포지역 : 한국, 일본, 중국, 우수리강 연안

- 서식장소 : 강가
- 용도 : 방수립, 가지와 잎은 녹비용, 열매는 식용으로 많이 쓰이며 하천정화용 식물로 많이 재배
- 개화기 : 3~4월
- 결실기 : 4~5월



〈그림 2〉 갯버들



〈그림 3〉 갯버들 군락

- 형태 : 우리나라 각처의 하천가에 나는 낙엽관목이다. 키는 2m 내외로 자란다. 햇가지는 황록색, 잎은 피침형(披針形) 또는 넓은 피침형, 길이 3~12cm, 폭 3~30mm, 뒷면에 웅모가 밀생하고, 흰빛이 나며, 가장자리에 잔 톱니가 있다.

## 2.2 키버들과 왕버들 생육상태

### 키버들(고리버들)

- 학명 : *Salix koriyanagi* Kimura
- 분류 : 버드나무과
- 분포지역 : 한국, 일본, 중국, 우수리 강, 헤이룽강
- 자생지 : 들이나 물가
- 용도 : 줄기는 바구니와 키 등의 공예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 개화기 : 3~4월
- 결실기 : 6월
- 형태 : 우리나라 전국의 냇가에 나는 낙엽 관목이다. 줄기는 보통 황갈색, 잎은 보통 대생(對生, 마주나기), 때로는 호생(互生, 어긋나기), 피침형, 가장자리에 잔 톱니, 길이 6~8cm, 폭 5~10mm이고, 표면은 진한 녹색, 뒷면은 분백색, 턱잎은 없다.

### 누운갯버들과 갯버들 비교

#### 누운갯버들 생육상태

- 누운갯버들은 하천 등 습지에 식재 가능.
- 낙엽 관목으로 포복성이며 1m 이상 자라지 않는다.
- 2~3년에 한번씩 전정(剪定)이 필요하다.



#### 갯버들 생육상태

- 갯버들은 하천가에 식재 가능.
- 낙엽 관목으로 2m 이상 자란다.
- 1년에 한번은 전정(剪定)을 해야 한다.



꽃은 암수딴그루(암수꽃이 같은 그루에 달리면 암수한 그루, 다른 그루에 달리면 암수딴그루라 한다)이고 단성화(單性花, 수술과 암술 중 하나만 있는 꽃)로서 3월에 유이꽃차례로 달린다. 꽃 이삭에 많은 꽃이 달리며 수꽃은 수술 2개, 꿀샘 1개이고, 암꽃은 꿀샘 2개이다.



〈그림 4〉 키버들



〈그림 5〉 키버들군락

키버들과 왕버들 비교

키버들 생육상태

- 키버들은 저수호안이나 소류지에 식재가능하다.
- 낙엽 관목으로 2~3m로 자란다.
- 2년에 한번 전정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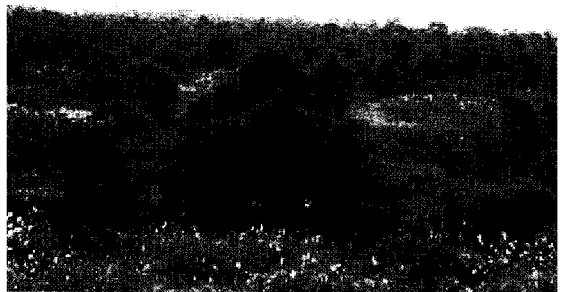
씨방(-房)은 대가 없고, 흰 털이 뽀뽀이 나며 암술머리는 2개이고 붉은빛이다. 열매는 삭과(蒴果, 익으면 과피(果皮)가 말라 쪼개지면서 씨를 퍼뜨리는 여러 개의 씨방으로 된 열매)로서 달걀 모양이며 4~5월에 익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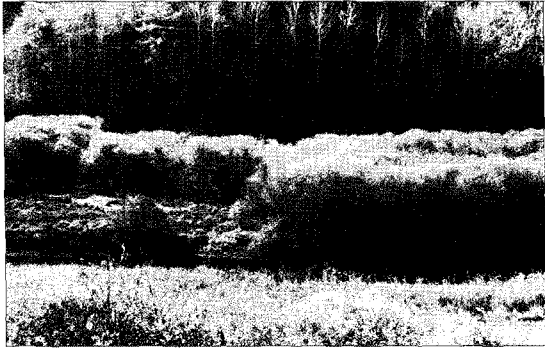
왕버들

- 학명 : *Salix glandulose*
- 분류 : 버드나무과
- 분포지역 : 한국(충남, 충북, 강원), 일본, 중국
- 서식장소 : 호숫가
- 개화기 : 4월
- 결실기 : 5월
- 형태 : 우리나라 경기도 이남의 냇가에서 자라는 낙엽 교목이다. 키는 20m, 지름 1m, 수피는 회갈색이고, 겨울눈은 난형 모양이다. 잎이 나올 때 붉은빛을 띤다. 잎은 타원형,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색이며,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가 있다. 턱잎은 귀모양, 잎자루는 5~10mm이며, 잔 모양의 꿀샘이 1개가 있다. 꽃은 유이화서, 암수딴그루, 단성화, 수꽃화서는 곧게 서고 꿀샘 6개와 수술 6개, 암꽃화서는 위로 비스듬히 서고 꿀샘 1개, 자방에 자루가 있다. 열매는 삭과 난형이며 털이 없고, 2갈래이다.

왕버들 생육상태

- 주로 습지나 냇가에서 잘 자란다.
- 낙엽 관목으로 10~20m로 자란다.
- 물속에서도 썩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림 6〉 왕버들

### 3. 맺음말

우리는 버드나무를 이용하면서 그 특성을 버리고 일률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버드나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하천이나 하천변에 식재시에는 물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식재하면 봄의 전령사인 버드나무를 운치 있게 바라볼 수 있고 수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